

# 말씀의 샘

## 하나님을 경험하다 <창세기 16:11~14 / 창세기 21:14~19>

오늘은 '하갈'을 살펴봄, 애굽 출신의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들어와 그가 사막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여정을 인도받던 중, 예견치 못했던 흥년을 만나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마음에 들어했다고 아내로 취하려 하면서 아브람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의 의미로 하사한 선물들이 있었는데, 아마도 그때 하갈이 그 가운데 속해있었다고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창세기 12: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흔적이었고 아브람 인생의 오점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갈의 입장에서는 애기치 않은 아브람의 공동체에 함유함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어쩔거나 복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뒤, 아브람이 하갈을 사래의 여종으로 붙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래가 아브람을 독촉하면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하갈이 사래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래가 아브람을 원망하며 하갈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하소연을 합니다.

창세기 16: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래가 하갈을 괴롭히기 시작하니, 하갈이 너무 괴로워하면서 임신한 채로 그냥 도망을 친 것입니다. 임신한 여자가 가방도 안 챙기고 향방도 없이 집을 나간다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하갈이 물론 잘못을 저지르긴 했습니다만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늘 제 3자의 입장에서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6: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솔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첫째, 하갈이 가장 먼저 경험한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창세기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창세기 16장은 하갈이 사래를 피해 도망하다가 광야의 샘물 곁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샘물 곁에서 천사를 만났을 때, 아마도 처음에는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라고 불렀을 때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알았는지 놀랐을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를 묻자 하갈은 자기의 이야기를 그에게 늘어놓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 태어날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받습니다. 그제서야 하갈은 하나님의 사자인줄 알고 놀라움과 충격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하갈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고 함이라

하갈의 반응은 감탄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하갈은 충격과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세밀하게 살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브엘라헤로아"라는 이름은 "나를 지켜보신 자의 우물"의 뜻입니다.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인 것입니다. 보통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이 날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의 이런 것 까지 알고 보셨지?'라며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이 실재적으로 와닿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부르고 많은 무리 속에서 뽕나무위에

올라있는 자기를 보고 내려오라는데 그는 기쁨과 신선한 충격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연유가 되어 그는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변화된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 받는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셨고 지금 나를 향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입니다. 지금 내 고민거리,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던 제목에 대해 마치 지켜보시다가 확증이라도 하시는 듯 말씀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허감'이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은 공허감의 원인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큰 공백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공백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채우려다 보니 공허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마음이 힘들 때마다 "오, 주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쉬기까지는 우리에게 휴식이 없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경험을 할 때 우리 심령은 광야 같은 세상의 한 가운데서 만나는 우물, "브엘라헤로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더 개인적이고도, 깊은 하나님 관계를 경험하게 되며 또 경험해야 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 자랐습니다. 늙은 할머니 사라가 이번에는 직접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갈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접 경험하게 된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동체속에서 이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간접 경험을 하는 것도 큰 은혜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사래와 하갈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갈이 나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1: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매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관목덤불만 있고 그늘도 없는 사막에서 오갈 곳이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죽음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1: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볼들라 그가 큰 민초를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주변에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우리의 응답은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체험은 하늘에서부터 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공급받고 경험하는 두란노성도님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16. 6. 5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 2016. 6. 1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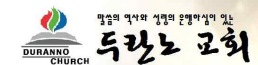
성 경 봉 독 ----- 디모데 후서 3:1~7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이기적인 신앙과 자원하는 신앙"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